

# 열린 미술관 만들어 시민 문화지수 'UP'



## 광주에 굵직한 미술 이벤트 선보이는 박지택 시립미술관장

“광주시립미술관은 새로운 문화 담론을 만들어 내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동력’입니다.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미술관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요즘 광주문화계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62)이다. 최근 ‘현대미술과 인문학’(2월19일~12월17일) 강좌를 필두로 ‘21세기 전쟁과 평화’(4월25일까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디지털스타’(10일~6월10일)전 등 굵직한 ‘이벤트’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립미술관에서 만난 박지택 관장은 현대 사회에서의 미술관 역할에 대해 묻자 ‘생산’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과거 미술관의 기능이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데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문화를 생산하고 이를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교육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담론을 만들고,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생산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시회를 기획한 뒤 관람객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던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관람객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신진작가를 찾아 소개하는 것이 현대 미술관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 미술관은 문화 담론의 장

### 관람객들 교육 갈증 해소

### ‘현대미술 강좌’ 호평 얻어

시립미술관이 광주일보와 손잡고 의욕적으로 선보인 ‘현대미술과 인문학’은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명품 현대미술강좌’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 문화 강좌의 수강생들이 대부분 작가와 전문가였던 반면, ‘현대미술과 인문학’은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시립미술관이 마련한 다양한 교육 강좌에 2천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것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 이색 행사도 주춤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의 작가 육성 프로그램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작가들의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한 서울 인사동 라이트갤러리

와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인 양산동·팔각정스튜디오, 북경창작센터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작가를 육성할 수 있는 미술관의 ‘국제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광주의 작가들이 서울, 북경에서 언제라도 전시를 할 수 있고 세계적인 평론가와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작가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파산즈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에서 문을 연 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김해성, 김진희씨가 오는 20일 개막하는 북경아트페어에 독일의 3대 갤러리 손꼽히는 마이클 슐츠 갤러리의 초대로 참여하게 됐다. 마이클 슐츠(59·Michael Schultz) 관장이 직접 북경창작센터를 방문해 이들 작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미리는 프랑스 보다는 파리, 영국보다는 런던이 더욱 유명해지는 도시 중심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의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정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관장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전공)을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강진 백련사에서 피는 ‘종교화합’

## 10일부터 팔국사 추모 다례제 현직 목사가 음악회 사회자로

아름다운 절 백련사 동백숲에서 그윽한 차향기와 음악에 젖어보자.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스님)가 오는 10일 ‘2010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백련사 다례문화제는 고려 후기 기 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 백련결사를 맺었던 스님들과 이를 이끈것인 팔국사 스님들의 뜻을 기리는 제례의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음악회 사회자로 현직 목사를 초청하는 등 전통제례의식에 생명과 평화, 종교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10일 오전 백련사 대웅전에서 부처님게 올리는 예불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팔국사 위패가 봉안된 대웅전 옆 명부전에서 전통사찰의식인 다례제를 올린다.

또 오후 3시부터 백련사 앞 동백숲(천연기념물 제151호) 부도밭에서는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다식을 즐기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들차회’가 준비됐다.

오후 4시부터는 동백숲 부도전에서 ‘숲속음악회’도 열린다.

이번 ‘숲속음악회’에서는 최명진(미래에서은교회 목사)씨의 사회로 가수 홍순관씨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 늦봄학교 보컬팀의 공연, 김세화씨의 색소폰 연주, 권형윤씨의 풀잎피리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날 오전에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대



‘숲속음악회’가 열린 강진 백련사 동백숲.

상으로 다산초당에서 백련사까지 800m 오솔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가는 체험학습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한편, 8일부터 만경투에서는 이호신, 박정호, 송필용씨가 백련사를 그린 작품과 대웅보전 벽화를 담은 그림과 사진을 전시하는 ‘천년의 숨결전’이 25일까지 열린다. 문의 061-432-083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서재필 선생 애국애족 정신 기린다

## 광주일보사 주축 백일장 등 기념사업 펼쳐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서 8일 59주기 추모식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 바친 송재 서재필(1864~1951·사진) 선생 59주기 추모식이 8일 오전 11시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는 지난 1991년 광주일보사와 뜻을 지역인사들이 주축이돼 창립된 단체로 생가 복원, 기념공원 조성, 독립문·동상 설립, 나라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기념사업을 펼쳐왔다. 이날 추모식에는 기념사업회 임원,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

할 예정이며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그 유훈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재필 선생은 1863년 보성 출신으로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해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했으며 독립협회를 창립하는 등 자주독립사상과 자유인권사상을 고취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의고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회의’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일제 한국점락에 대한 부당성을 폭로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등

평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했다. 선생의 유해는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 남플랑에 안치되어 있던 것을 지난 1994년 봉환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문의 061-852-281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명성황후’ 이번엔 어떤무대 꾸밀까

## 광주시립무용단 9~10일 문예회관·내달 중국 공연도

지난해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초연한 창작발레 ‘명성황후’는 국내 처음으로 국악관현악과 발레의 결합을 시도, 화제를 모았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발레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에게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진 발레 ‘명성황후’는 색다른 감흥을 전해주었다.

시립무용단이 업그레이드 버전 ‘명성황후’를 광주(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과 중국에서 선보인다.

‘명성황후’는 16세의 나이에 고종과 결혼, 격변의 풍랑 속에서 조국의 운명을 걱정한 한 나라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 한 아이의 어머니로 생을 살다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명성황후의 모습을 2

막으로 풀었던 작품이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명성황후’는 초연 당시 지적됐던 부분들을 수정했다. 태권무와 무사춤 등 장면이 길어 다소 지루했던 부분들을 덜어내는 등 전체적으로 20분 가량 축약, 작품의 집중도를 높였다.

또 작품의 피날레인 ‘진혼제’와 관련한 곡을 새로 만들고 안무도 새로 짜 마지막 깊은 울림을 주도

했다. 주인공 명성황후 역으로는 구윤지·정정은씨가 출연하며 고종 역으로는 오랜만에 주역으로 무대에 서는 오윤환씨가 출연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심인택)이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

일 예정이다. 한편 ‘명성황후’는 중국 공연도 추진중이다. 무용단의 해외공연은 지난 2003년 미국 공연 이후 7년만이다.

시립무용단은 오는 5월 11일과 12일 두차례 중국 북경 천궁극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는 한중수교 18주년을 맞아 중국 문화부가 초청해 이뤄졌다. 천궁극장은 1천 500석 규모의 오페라·발레 전용극장으로 중국중앙발레단의 상주공연장이다.

이번 중국행에는 시립무용단과 함께 시립국악관현악단도 참여한다. 무용단측은 중국 공연을 계기로 중국 중앙발레단과의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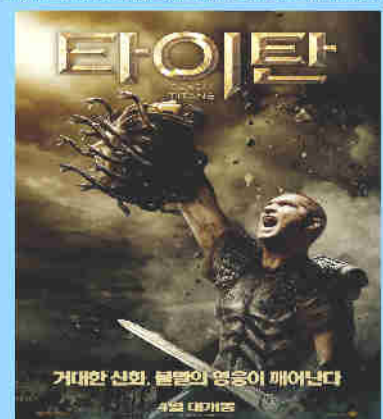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5천원.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 / 학 / 안 / 내

# 영화에 빠지다

## 메가박스

1관	타이탄 (124)	최고급관
2관	타이탄 (124)	
3관	타이탄 (124)	
4관	그린 존 (154)	
5관	서터 아일랜드 (154)	
6관	(3D)타이탄 (124)	
7관	솔로몬 케인 (184)	
8관	비밀에 (184)	
9관	폭풍전야(184)	
10관	타이탄 (12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연면역국사거리 ☎에 1544-0600

## 콜롬버스시네마

1관	폭풍전야 (184)
2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3관	솔로몬 케인 (184)
4관	레이징 피닉스 (154) / 무법자 (184)
5관	그린 존 (154)
6관	비밀에 (184)
7관	(3D)타이탄 (124)
8관	타이탄 (124)
9관	타이탄 (124)
10관	타이탄 (124)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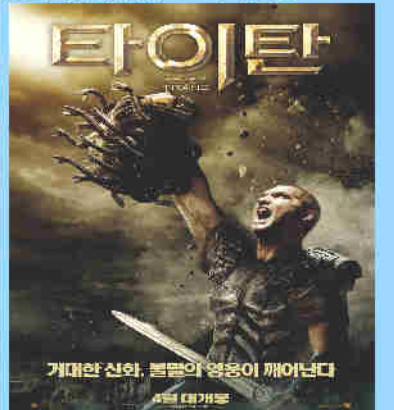


1588-7941 상담형원점 행복-(1번 or 2번)→0번

##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4)/몰링 인 러브(154)
2관	그린 존(154)
3관	솔로몬 케인 (184)
4관	의형제 (154)
5관	비밀에 (184)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제)
7관	타이탄 (124)
8관	타이탄 (124)
9관	폭풍전야(184)
10관	폭풍전야(184)

• 2000대 범용 주차장(3시간무료) • 3D 디지털 상영  
• 이틀 통신키트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스포츠장 259-5767 • 해미 병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센터 www.hamichema.co.kr / 1586-9120  
전대무운 하미스포박스 ☎ 267-7777

## 씨너스전대

1관	육혈포 강도단 (154)
2관	서터 아일랜드 (154)
3관	타이탄 (124)
4관	데이브레이크스 (184) / 비밀에 (184)
5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184)
6관	그린 존 (154) / 몰링 인 러브 (154)
7관	(디지털 4K)타이탄 (124)
8관	(디지털 4K)타이탄 (124)

씨너스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전대 영화상영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 제일시네마

1관	타이탄 (124)
2관	타이탄 (124)
3관	그린 존 (154)
4관	육혈포 강도단 (154)
5관	비밀에 (184) / 의형제 (154)
6관	솔로몬 케인 (184)

• 무료주차 3시간\*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www.primuschema.com/www.jellicinema.co.kr  
충무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